

## “어업인 생계도, 밥상 물가도 지킨다” 민관 합동 적조·고수온 재난대비훈련 실시

- 통영 산양 해역에서 해수부 장관 주재 실전형 해상 재난대비훈련 전개
- 드론 예찰부터 황토 살포, 어류 긴급방류까지 단계별 대응체계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5일(목) 14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명·학림 해역에서 지방정부, 해경 등 유관기관, 어업인들과 함께 ‘2026년 적조·고수온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고수온과 적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방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 훈련에서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이 현장 지도선에 직접 승선하여 전체 훈련 상황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광역 예찰 결과 외해에서 적조 생물(코클로 디니움)이 발견되어 해당 해역에 ‘예비특보’ 및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하고, 점차 위기경보 수준이 상향(주의→경계→심각) 되는 상황을 설정해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관공선 10척, 해경 방제정 2척, 경비정 1척, 다목적방제선 6척, 물같이 어선 6척, 황토살포기 등 대응 장비를 대거 동원하여 실전과 동일한 수준의 방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조·고수온 발생 시 사육밀집도를 완화하여 폐사를 예방하는 긴급방류 시연도 함께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재난대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오는 7월 초중순부터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 적조·고수온 특보 기간 동안 비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원활한 수산물 수급과 어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적조·고수온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급과 밥상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재난”이라면서, “자연재난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해수부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51-773-5392)
			사무관	김지수 (051-773-5622)
		주무관	남정희 (051-773-5621)	